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도님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수억의 사람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쏟아 부으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 드렸습니다만, 오늘 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능력이고 최고의 무기인 성경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침이 되는 책입니다. 영혼의 호흡과 영적인 대화를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 하듯, 영혼의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이를 데 없어서 늘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간과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사건들을 기록한 장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1.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사람들의 죄 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20장 31절]

2. 성경은 신앙적인 모든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의문점을 해결 받는 성도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3.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지침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며 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책망을 받거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참고 성경구절 :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 성경은 누가 썼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100년 후까지 쓰여졌으며, 그 기간 동안 약 4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특별한 책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팔레스타인, 로마,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등지에서 쓰여졌으며, 기록된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 등 3개 국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자, 시대, 문화, 지역, 환경하에서 쓰여졌으면서도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가지로 통일된 책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이사야 34장 16절]

한편,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껍질로 만든 종이에 기록된 성경은 그것을 베껴 적는 방식으로 전수되다가 지금은 그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들만 남아서 각각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하여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1611년에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100여 년 전 외국 선교사들과 우리 나라 성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1.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끊임 없는 배반, 그리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5장 39절]

2.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까지 쓰여진 구약 39권은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초점을 맞춘 것이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쓰여진 신약 27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 5권은 천지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가서 5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시들을, 선지서 17권은 선지자나 예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4.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편지),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고, 역사서 1권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 모습들을, 서신 21권은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을, 예언서 1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심판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은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아 가야 되겠습니까?

1.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자신을 깨우치고 갈 길을 인도받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일반적인 책들과는 달리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참고 성경구절 : 히브리서 4장 12절]

2. 성경을 알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설교나 성경공부, 방송 등을 통하여 꾸준히 들을 때에 잘 자랍니다.

②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되,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나서 읽습니다. 하루 15분 가량, 성경 3장 정도 씩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③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제자 훈련 반이나 구역 예배 등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여 성경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시되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 사복음서 -

성경의 신약 전서를 펼치면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마가복음이고 이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를 가리켜 4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들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름을 붙여서 성경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福音)’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과 같은 뜻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면 이 사복음서부터 읽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배 안 내	주 일 예 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 타 예 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 기 모 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삶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희망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고

다가오는

모든 문들을 하나씩 열어 가면

삶에 리듬감이 넘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눔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져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울까요?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